

사람생각!
소통의 공간!
행동하는 지성!

할 말은 한다 1호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옥 전화/920-5159

조직문화 개선의 첫걸음! 폭력 ZERO 안전한 일터 만들기! 상호존중 문화 만들기 노사 공동 선언



노사협의회에서 상호존중 문화 만들기 노사 공동 선언 합의.

2021년 3/4분기 노사협의회는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정릉 메디 사이언스파크 정보관 5층 본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올해 들어 공식적인 노사 첫 만남이었다. 사측은 대표위원인 김영훈 의무부 총장을 비롯해 김병조 의무기획처장 및 간부가 참가했으며, 노측은 노재옥 지부장이 대표위원으로, 정혜란 수석부지부장 및 간부들이 참가했다. 노사협의는 상호존중 문화 만들기 노사 공동 선언 및 캠페인으로 진행됐으며 공동 선언문에 노사 대표가 서명했다.

사, 노사 공동 선언문을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상호존중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대표위원 인사말에서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올해 고대의료원의 새로운 비상, 단순한 이름만 있는 규모의 비상만이 아니라 내용이 잘 채워지고, 조금 더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직원들이 늘고, 노력에 따라서 보람도 되는 고대의료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면에서 노조가 많이 도와주시고 서로 같이 잘해보시다” 라고 밝혔다.

노, 상호존중 문화가 정착되려면 예방 및 교육이 필수, 폭력 행위를 한 자에게는 강력한 조치,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노측 대표위원인 노재옥 지부장은 “상호존중 문화 만들기 노사 공동 선언 및 캠페인은 조직문화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은 폭언이나 반말 등에서 자존감 상실과 모욕감이 심하다. 폭력 ZERO,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해 노사가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서 상호존중 문화가 원 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노사 양측은 교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골자로 한 ‘공동 선언문’ 을 채택, 직원 모두가 행복한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

교직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교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노사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노사는 직장에서 올바른 호칭(교직원 간 통합호칭 “선생님”)과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가 사용되도록 한다.
3. 노사는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이하 폭력이라 한다)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노사 공동 캠페인을 마련한다.
4. 노사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근절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5. 노사는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사문화, 조직문화, 인력문제 개선 TF에서 협의한다.

[2021년 3/4분기 노사협의회 논의 안건 및 결과]

안 건	노동조합	의료원
1. 합의사항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식대 25끼 초과 시 4천 원 인상 문제 개선 건	직원식당을 이용할 때 25끼 초과 식사 시 4천 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종전 금액으로 인하여 운영해야 한다.	2022년 1월 11일부터 식대 25끼 초과 3천 원으로 원상회복하겠다.
관공서 공휴일 대체휴일 관련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건	<p>2021년 합의사항 중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한 자에게 대체휴일 부여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으나 이에 관련한 인력충원은 2022년 3월 중으로 합의했다. 그래서 그사이 기간에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p> <p>[미사용 연차 건]</p> <p>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인력충원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관공서 대체휴일 부여 건]</p> <p>① 3교대 근무자 대체휴일을 해당 월에 부여해야 한다.</p> <p>② 3교대 부서 야간전담도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한다.</p>	<p>[미사용 연차 건]</p> <p>① 2021년에 한해서 미사용 연차 30%까지는 수당으로 지급, 나머지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하며 내년 미사용 연차 지급 시 이월된 연차는 제외하겠다.</p> <p>[관공서 대체휴일 부여 건]</p> <p>① 일반병동 대체휴일은 해당하는 달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 부서 사정상 부여 못 하면 3개월 이내에 부여하겠다.</p> <p>②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야간전담 끝내고 3교대로 돌아왔을 때 듀티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체휴일 부여하며 1월 11일부터 적용하겠다.</p>
2.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종사자(병동, 외래 포함) 가운 지급 및 세탁물 처리 건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에 관한 병동간호사 간편복 지급을 개수 제한없이 대.중.소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탁물 관련 타병원 사례와 간호부 계획 검토, 계약과 관련하여 총무팀, 구매팀 회의 후 답변해주겠다.
야간 간호료 지급 관련 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야간 간호료 수익금 전액을 야간근무 시행 간호사에게 분기별로 지급해야 한다.	야간 간호료의 70%는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에 관련해서는 간접인건비와 처우개선 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생리휴가 사용률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건	직종별 부서별로 생리휴가 사용률이 낮은 곳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목표부서를 선정하고 노사가 함께 개선활동과 결과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자. 특히 사용률이 낮은 행정직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운영 부서장 회의 시 생리사용률 데이터를 공개하여 행정직의 생리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 있게 하겠다.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노동조합의 요구안대로 부서 지정하여 생리휴가 사용률 목표치를 정하여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3.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불법의료 근절 개선 건	간호사 등에게 의사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 및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업무 범위 외에 해당하니 개선해야 한다.	불법의료 공동실태 조사는 거부하나 관련 내용 교육수련부와 논의하겠다.
코로나19 병동 간호사 인력 기준 준수 건	코로나19 위중증, 준중증병동 간호사 인력 기준을 중앙수습본부 공문 권고기준대로 적용해야 한다.	권고사항이고 변수가 많다.